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만경강 생태문명 중심지 조성 '한마음'

전북도-환경부-수자원공사
만경강유역 4개 시군과 협약

하천수 이용 생활용수
용담댐 용수로 전환

수질개선 위해 용담댐
1급수 용수 공급기로



23일 전북도청에서 한정에 환경부장관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오택림 익산부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김택천 강실리기추진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만경강 살리기 협약식이 열렸다.

전북 젓줄의 하나인 만경강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문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이 힘을 모았다

환경부와 전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만경강 유역 4개 시·군(전주, 익산, 김제, 완주)은 23일 전북도청에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에 환경부장관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박재현 수자원공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오택림 익산부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김택천 강실리기추진단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 안효영, 윤준병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협약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전북도는 만경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 유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만경강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그간 환경부와 지자체는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만경강에서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까지 취수 하면서 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은 건천화 돼 가고, 수질 악화와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만경강의 본래 모습과 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도는 부족한 유량을 확보해 만경강을 살리고자 농업용 저수지에서 방류, 만경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생활과 공업용수 26만톤을 용담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건천화로 인한 극심한 수질 오염과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만경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1급수인 용담댐에서 추가로 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 유량이 기존 하루 평균 9만톤에서 최대 52

만톤까지 공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경강에 유량이 확보되면 수질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8.2%, 총인 기준 17.9%가 개선됨으로써, 종착지인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과 새만금 수변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용담댐으로 생활·공업용수 취수원 전환 등은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용담댐에서 차질 없이 공급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는 용담댐이라는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 있음에도 그동안 용담댐에서 공급이 어려웠던 문제가 이번 협약을 통해 해결됐다.

특히, 만경강 유량 확보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계로 변모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번 협약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용담댐 광역상수도 추가 확대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진안군 전 지역에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진안군민의 20여년 숙원을 해결했다.

또, 현재 농업용 대간상수로를 통해 원수를 공급받아 수질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익산시 전 지역을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에 재정비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새만금개발에 따른 용수수요량 52만톤을 공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충분한 용담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전북도는 만경강 살리기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별도의 사업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만경강 수질개선과 저류지 조성,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선도사업으로 고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만경강 생태습지·저류지 조성사업이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와 전북도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만경강, 대한민국 생태 문명을 선도할 만경강을 차질 없이 만들어 가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경강 유역 4개 시·군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 친화적인 사업들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만경강 하천유량 고갈 문제 해결로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새만금 수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만경강 수질과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전북 중심 하천인 만경강을 되살리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협약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만경강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도내 100만331명 완료

도, 추석 전 도민 70% 1차접종 목표 달성 전망
18~49세 내달 18일 오후 6시까지 추가예약 가능

전북도민 100만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마쳤다.

전북도는 8월 23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100만331명으로 도민의 55.4%에 해당되며, 이 중 49만5,112명이 접종을 완료(27.4%)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백신 수급상황, 18~49세 10주제 사전예약 결과,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 도민 70%(126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3일 0시 기준, 18~49세 10주제 예약에 이어서 실시한 연령별 사전예약 결과, 28만8,908명이 예약에 참여했으며, 예약률은 64.1%(대상자 45만326명)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8일부터 이날

까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도민들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합쳐주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미처 예약하지 못한 18~49세 대상자는, 21일 오후 8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계속 예약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접종 기회 열려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전북도는 오는 28일부터 40대 이하 청장년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백신 도입 배분,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접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2050 탄소중립 실현 소재산업으로부터'

탄소친환경, 테크포럼 개최
환경 표준 인증사례 공유
탄소복합재 리사이클 기술
개발 동향 살펴보는 데 초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은 23일 탄소산업 민간분야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기업수요 청취를 위해 제2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테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기술 개발 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종 환경 표준 인증 사례를 공유하고, 탄소복합재 및 리사이클링의 리사이클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윤혁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은 산업계에 위기가자 기회"라며 "기업들의 ESG경영 확대 등 기후환경을 고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소재의 적용으로 제품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제조·공정 단계에서 재사용과 재활용 가능한 소재·부품의 사용으로 저탄소 경제, 순환경제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스마트에코 김익 대표는 탄소중립 도구로서의 접근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와 관련해 LCA 틀을 이용한 환경영향 산출방법, LCA 모델링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권상숙 실장과 ULC로이 전영석 차장이 국내외 환경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과 관련한 환경 인증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탄소복합재 리사이클과 관련해 진행된 2부 주제발표에서는 카텍이치 김종일 이사가 탄소섬유복합재 리사이클 기술 개발 동향과 기술 양산화에 대해 발표하고, 성일하이텍 변석현 소장이 리사이클링(LIB) 재활용 기술 동향과 제품별 탄소성적 인증 진행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진흥원은 지난 4월 국내 산업의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포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인증, 탄소소재 기반의 탄소중립 이행 방향 등을 모색하고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춘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